

청년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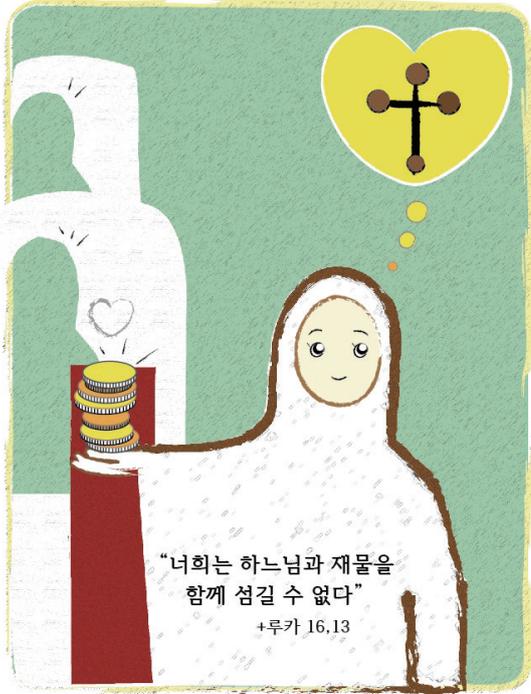


그림 | 강마리아

입당송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 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제1독서 지혜 3,1-9

화답송 시편 126(125),1-2,7-8,24-26-3,4-5,6(◎ 5)

-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겍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로마 8,31-39

복음환호송 1베드 4,14 참조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루카 9,23-26

영성체송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순교자 성월 특집

이름 모를 순교자여, 새 빛 되소서!



강화도에는 무명 순교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일만위 순교자 현양 동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과 높은 언덕을 지나서야 도착한 이곳은 마치 걸어가기 힘든, 아무나 걸어갈 수 없는 순교의 길처럼 보였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삶을 바친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9월도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4면에서는 자신의 순교 사실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무명 순교자에 대해 알아보고

그분들의 신앙을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휴가 중에 어느 작은 이탈리아 동네의 은퇴 신부님들 숙소에 묵었던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신부님들 몇 분이 오랫동안 지키고 계셨던 그 숙소에 젊은 한국 신부가 와서 묵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지 햇살 좋은 어느 오후에 인상 좋은 한 외국 신부님이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그리고 소개하시기를, 자기는 선교에 관해 논문을 쓰고 있는 학생 신부로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었는데 마침 한국인 신부가 왔다고 해서 찾아왔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잘 전해주지 못해 아쉬움이 남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교사도 없이 신앙을 받아들인 것에 놀라며 돌아서는 그분의 뒷모습에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수년 동안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천주교가 학문적으로 연구되다가 1784년 동료들의 격려로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새로운 입교자들이 생겨나면서 유례없이 우리는 스스로 신앙을 찾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100여 년간 극심한 탄압과 박해가 이어졌고 셀 수 없이 많은 신자와 성직자들이 순교하게 되지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 편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의 순교와 봉사가 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임에도, 너무나 쉽게 그 피와 땀을 잊고 사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성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전해진 순교 선조들의 모범, 그분들의 신앙의 노하우를 되새겨 봅시다.

박해의 고통 속에서도 성경과 교리 서적들을 공부하면서 불태운 신앙의 열정은 계속되는 박해를 극복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고통과 아픔을 넘어선 것이지요. 또 복음은 단순히 종교 안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신분제도가 엄격하던 그 시절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는 인식을 통해 형제가 될 수 있었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사회적 복음으로까지 폭넓게 인식하고 받아들인 선구자들이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분들은 박해시대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세속의 권위보다 하느님의 가르침과 양심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더 고귀한 것을 지키고자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은 아니더라도 헤어나오기 힘든 수많은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며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찌면 또 다른 순교의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편한 것보다 더 불편한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귀를 간질이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서도 저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려 애쓰는 것.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었지요. 분명 그 발걸음은 매일 우리를 또 하나의 작은 순교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를 쉽게 옮겨 놓은 책 <DOCAT>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복음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이어서 주변 환경을, 마지막으로 세상 전체를 바꾸어 볼까요?



9.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

요셉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

저는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그런 저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스무 닢에 팔아넘겨 버렸죠. 그렇게 저는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해로 인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형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형들과 다시 만났을 땐 과거의 일들을 전부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와 은총의 선물로 주어 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후에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에도 그 믿음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영원한 생명을 희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절망에 빠져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십계령의 다섯 번째 계령을 생각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탈출 20.13)라는 계령은 자신의 생명에도 유효합니다. 생명을 베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서는 잠깐 맡겨진 이러한 선물을 함부로 다루는 일에 대한 절대적 자유는 없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죽어가는 이들과 동행하고, 그에게 인간적이고 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편익을 제공하는 이웃 사랑을 베푸는 것이며 자비의 계령을 실천하는 일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안락사의 모든 형태와 자살하는 사람을 돕는 것을 명백히 반대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나 불치병 등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도 있는 것 아닌가요?



생명의 가치는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의학의 진보는 인류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인간은 다른 이들에 대한 결정의 힘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배아를 배양하는 것이 ‘유익한 것’으로 보이고, 장애인을 태내에서 죽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며, 병자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이 ‘인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권력이 남용될 때 교회는 항상 희생자의 편에서 있어야 합니다. 연구가 도구화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을 거슬러, 특히 사회적 약자를 거슬러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또한 모든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죽음을 떠올리면 두렵고 무서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 아닐까요?

오늘날 죽음은 육체의 멸망으로만 여겨지지만, 죽음은 삶의 결정적인 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죽음은 마지막 성숙의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으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희망합니다. 이로써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특히 고통을 겪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신뢰는 죽음을 앞둔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도 위로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참조_「DOCAT」 77, 78, 80, 83항

무명 순교자의 피로써 일궈 낸 '순교자의 땅'



▲ 광희문 순교성지. 도성 안에서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한 무명 순교자들의 시신은 이곳을 통해 내다 버려졌다. 光熙라는 이름답게, 순교자의 영광이 빛나는 문으로 우리 곁에 서 있다.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처음 방한하셨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땅에 입을 맞추며 '순교자의 땅'이라는 말을 되풀이하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103위 순교 성인과 124위 순교 복자는 한국 교회의 자랑이자 가톨릭 신앙을 유지하는 탄탄한 기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분들 이외에도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채 죽어간 많은 순교자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에 대한 박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공식적인 재판 절차나 기록을 무시한 채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게 되면서 무수한 무명 순교자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원조차 알 수 없는 이분들을 하나하나 시복, 시성하기란 불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 하나만으로 자신의 삶을 내던졌던 그분들의 희생을 기도 중에 기억하며 하느님께 전구를 청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지난 방한 때 시복 미사 강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이 정축을 통하여, 이 나라와 온 세계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명 순교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 마지막 세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쳤거나 그분의 이름 때문에 모진 박해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이들 잃은 순교자들을 기억합니다.”



▲ 해미 성지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교황 성하. 해미읍성의 성문 밖에는 순교자들의 시체로 산을 이루고 그 피로 내를 이루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수많은 무명 순교자가 양산된 곳이다.

청년 여러분, 우리도 무명 순교자들처럼 마음의 중심에 하느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청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듯이
그들의 무명(無名)을 통하여 저희 삶을 인도해 주소서.

- 일만위 순교자 현양 기도문 중 -

[편집부 송슬기 미카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직원 채용 안내
인원 계약직1명(추후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
분야 청년사목 기획 및 운영
문의 mail@2030.or.kr
대상 대졸이상, 청년활동 경험(영어 가능자 우대)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최종 합격자는 추후 개별통보)
9월 22일(일)까지 이메일(mail@2030.or.kr) 접수

서류 응시원서(굿뉴스 가톨릭 단체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사본, 졸업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2019년 청년 전례학교 초급 3차

일시 10월 26일(토), 27일(주일) (2일간 교육)
대상 전례에 관심있는 청년 (본당별 선착순 3명) 교육비 40,000원
신청 10월 8일(화) 14시~ 청년부 홈페이지(www.2030.or.kr)에서 신청